

연중 제 21 주일

제1독서 : 이사야서 22, 19-23

제2독서 : 로마서 11, 33-36

복 음 : 마태오 16, 13-20

숨 정 이

이 주일의 화답송
주님,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 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강론

첫째가는 신경(信經)

최용준 신부/ 장계 성당

요즘 신자들을 보면 지킬 계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것 같은데, 정작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는 신경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 같다.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서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삶의 근본적인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당연 신앙은 살아가는 방식에 답을 주는 지침서로 이해되거나 삶의 바탕을 받쳐주는 근본이유는 되지 못한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모든 율법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도 또한 어느 부자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 왔을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것이 어디 숨어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팔아가난한 이에게 주라는 권고도 파격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지켰으며 그래도 끝없는 갈증과 부족함이 남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람의 빈곤과 부족함은 그런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고 가야 될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감정조절이 안되고 충동적이며 더군다나 영적인 눈뜸에 둔감했던 베드로의 처지에서 보았을 때 그런 식의 신앙접근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몇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는 투박한 질문을 생각해 볼때 베드로는 앞의 사람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용케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시라고 대답하는 행운을 얻는 바람에 그의 삶의 밑받침이 든든히 세워졌던 것이다.

하여 신앙고백은 계명의 준수를 앞지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구약에 신앙고백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엄연히 있었다. 오늘날 교회에도 신앙고백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느님이 누구시냐는 신경의 내용에 마음을 쓰지 않고, 내가 누구냐는 계명의 실천에 마음을 쓴다. 어쩌면 구원은 자기를 완성시키는 그 극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기 모습을 하느님의 형상안에 녹여 붓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앞가림에 연연하는, 계율적 신앙은 항상 유다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하느님이시라는 절대적 선행과 투명성에 마음을 열고 눈을 뜨게 될 때, 분명 그에게는 새로운 구원의 빛이 들어오리라.

소리

어머니가 설 수 있는 곳

올 여름은 무척 더웠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머니는 혈액순환이 안 되어 발이 시리다고 버선을 신고 지내셨다. 몇십 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매년 산달이 돌아오면 영락없이 아픈 곳이 더 아파 온다고 하신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끊임 없이 베풀어주고 가진 것 다 내주고 몸생각 하지 않고 보살피신다. 그래도 힘들다 생각 않고 더 줄 것이 없는가 늘 궁리하신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하다 싶으면 서운해한다. 어머니에게는 방학도, 휴가도, 명절도 없다. 아파서 몸져누우면 그게 방학이고 휴가고 명절이다. 어머니에게는 자기자신도 없다. 너무 오랜 세월을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식구들 뒤치다꺼리에 시간을 다 보내 버렸다.

내가 가서 몸과 마음을 부려놓고 편히 설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어머니의 가슴이다. 그러면 어머니가 편히 설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 바로 어머니 자신의 가슴속이리라. 이제 우리는 어머니가 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드려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어머니 자신을 찾아 드려야 한다.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 되어 혼자서는 힘이 들기 때문이다. 모든 어머니에게 이름을 돌려 드리자. 어머니만 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드리자. 온 가족이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덕]

숨 정 이 산책



"너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대희년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의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온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희년은 영원한 소명이기도 하다. 희년은 안식년의 쉼으로 시작하여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 옮겨간다. 그렇다면 이제 “희년”의 눈으로 우리의 본당생활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과연 나 자신과 우리 본당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 주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주고, 눈먼 이들을 새로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과연 가난한 이들과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해방과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본당 안에서 구현할 책임이 있으며, 본당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그를 선행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우선적 선택은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우선권을 주기 위한 우리 자신과 본당, 우리 나라의 활동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이 놓인 상황에 대하여 나 자신과 본당 신자들이 인식을 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에 우리의 삶을 맞추라는 부르심을 깊이

이해하도록 힘써야 한다.

미국 어느 교구의 주교님께서는 97일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모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또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는 질문으로 본당과 교구에서 개최하는 여하한의 모든 모임을 시작해 보도록 권고하셨다. 그 교구의 신자들은 모든 모임 때마다 이 질문을 계속하여 되뇌면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알아볼 줄 모르는가 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그들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질문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무관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의 우선 순위를 바꾸게 하였다. 그 기간이 끝난 다음 이를 제안하신 주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제 우리가 다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말이 정상적인 보통 모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방법을 찾는 것을 뜻한다면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기쁘고,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125일 남았습니다.

본 대학의 방영구(실베스텔)신부님께서 26년간의 교직생활을 끝마치시고 오는 8월말에 퇴임하게 되어 그간의 사제양성에 헌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념행사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일시 : 1999년 8월 30일(월) 오후 2시 30분 2. 장소 : 학교 실내 체육관 3. 행사 : 기념미사, 퇴임식, 축하연
 참석하실분은 8월 25일까지 통보 바랍니다
 학교법인 대건학당 이사장 윤공희 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 범선배 ☎ (0613) 337-2181 FAX(0613) 337-2185

도탈 패션
I M 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위 K.F.C 앞
 ☎ (0652) 231-7853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 C-T촬영 · 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 · 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 · 성인병검진 · 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0652) 278-1212-3

전 주 대 항 외 과
(구. 학문외과)
 대장 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변비)
 전문의 소 우 성(스테파노)
 효자동 서도프라자 입구
 ☎ (0652) 227-0377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사제 인사 발령

성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오현택 신부	팔마성당 주임	상삼례성당 주임
김동준 신부	나바위성당 주임	평화동성당 주임
성태수 신부	안식년	화산동성당 주임
정태현 신부	CCK 성서사도직	글라라수도원
이상섭 신부	평화동성당 주임	팔마성당 주임
이성우 신부	화산동성당 주임	나바위성당 주임
김기곤 신부	글라라수도원	아중리성당 주임
한병헌 신부	상삼례성당 주임	소룡동성당 주임
이상용 신부	군중대기	중앙성당 보좌
송호석 신부	소룡동성당 주임	스위스교포사목
안봉환 신부	중앙성당 보좌	로마유학

● 부임일자 : 8월 31일(화)

교구·제 단체 소식

1. 레지오 단원 교육 : 8월 23일(월), 덕진 성당
2. 익산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8월 23일(월) 오전 10시 30분, 창인동 성당
3. 은혜의 밤 철야기도 : 8월 27일(금) 오후 11시, 전동 성당
4. 소년 Pr. 간부 교육 : 8월 28일(토), 전동 성당
5. 혼인강좌 : 8월 29일(주일) 오전 9시 30분, 가톨릭 센터
6. 2000년 대희년 맞이 가톨릭 예술단 공연 「남이시여 사랑이시여」 : 9월 11일~12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7. 제5기 자원봉사자학교 안내 :

교육기간 - 9월 6일~11월 8일 (총 10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교육대상 - 사회복지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모든 성인(종파 초월)
 장 소 - 전동 성당 교육관(전주시 완산구 전동 200-1) ☎ (0652) 284-3222
 교육비 - 30,000원, 접수 및 문의 - 8월 31일까지, 교구 사회사목국 ☎ 0652) 284-5290 FAX 284-4855

1999년 제1학기 가톨릭 신학원 성서부 학생모집과 개강 안내

- | | |
|---|--|
| <p>1. <성서교실>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졸업하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 : 8월 26일~ 수시접수 · 수업일과 시간 : 매주 목요일 낮 반 - 오전 10시~12시
저녁반 - 오후 7시~9시 · 개강일과 개강미사 : 8월 26일(목) 오전 9시에 개강미사가 있습니다. · 접수처 : 신학원(윤호관내) 행정실 · 전 화 : (0652)256-2655(행정실)/ 255-2677~8(관리실) · 등록금 : 2학기 5만원(5개월) | <p>2. <말씀나눔>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 성서교실반을 졸업한 분들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 : 8월 30일~수시 접수 · 수업일과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 개강일과 개강미사 : 8월 30일(월) 오전 10시에 개강미사가 있습니다. |
|---|--|

요심이 (1359) 김병오



사무장 채용공고

대상 : 영세한지 3년이상된 남자
 자격 : 고졸이상, 1종 면허소지자
 서류 : 이력서, 운전면허증 사본
 자기소개서 각 1통
 접수 마감 : 8월 29일(주일) 오후 5시
 합격여부는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문의 및 접수처 : 천주교 여산성당 사무실 ☎ (0653) 836-5016

성소피정 보혈선교수녀원

일시 : 9월 4일(토)~5일(주일)
 주제 : 아무도 가지 않겠다면 ...
 장소 : 충북 청원군 수녀원 본원
 문의 : (0431) 260-1638

지역특화시범 환경농특산물(무농약) 인진재배 생산 수출액
마이산인진속Project
 박 준 호(암브로시오)
 안 순 정(라사라)
 주문처 전화 ☎ (0655) 432-2680, 4000
 전주사업소 (0652) 254-2404
 기술협력 : 전북 농업기술원 진안속근약초시험장 원광대학교 의약자연 연구센터

온수이불, 한복전문점
삼정훈수프라자
 직염송공장에서 현물을 새송같이 개조해 드립니다.
 소 병 을(루 가)
 최 영 자(루시아)
 송천동 서호 1차 아파트 입구
 ☎ (0652) 274-3983/3943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쿤 : 160,000원
 · 옥, 맥반석 돌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원명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가격 : 특 (10kg) 30,000원
 大 (10kg) 25,000원
 中 (10kg) 20,000원
 구입문의 : (0658) 543-0881
 휴/016-656-0881

■ 김·정·고·부 지구 본당소식 ■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기수
유치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사목회장 정길진

◎ 오늘은 연중 제2주일: ① 이웃과 함께 동네 청소하기
② 사목교서 「새날 새삼」 42쪽~43쪽 "좋은 이웃 되어주기" 읽기

1. 모임: ①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27일(금) 후 8시
2. 주일학교 개학: 28일(토) 후 3시
3. 전신자 성지순례: 9월 5일, 미리내
4. 감사: 교육관 회합실 선풍기 설치 - 꾸리아
5. 예비신자 교리: ① 신부님반 - 매주 화요일 후 8시
② 수녀님반 - 매주일 전 9시
6. 금주 전례: 은희태, 송갑순

□ 지난주 봉헌금: 882,000원 □ 교무금: 539,000원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이완재
유치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사목회장 조건규
F A X 584-1333

1. 오늘은 이재민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2. 성모승천 대축일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금주 모임: 사랑하를 모친 꾸리아 - 중심미사 후, 교육관
4. 본당미사 참석공소: 금주 - 덕림, 창북
5. 금주 정소: 2구역

□ 지난주 봉헌금: 1,487,000원 □ 교무금: 435,000원
□ 성제헌금: 43,7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3-0177 주임신부 최종수
F A X 543-0177 수녀원 543-2651 사목회장 김한규

1. 금주 전례: 해설 - 이윤순, 독서 - 김승학, 정재덕
2. 차주 전례: 해설 - 박철석, 독서 - 문재현, 반영복
3. 차주 모임: ① 꾸리아 ② 사목회 - 9월 4일(토) 8시 30분
4. 오늘은 수재민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5. 병자 봉성체: 9월 2일(목) 전 9시
6. 구장 공소미사: 5일(주일) 전 7시
7. 성당정소: 최인의 의탁 Pr.

□ 지난주 봉헌금: 305,620원 □ 교무금: 495,000원
□ 2차 헌금: 126,520원

시기동 주임신부 532-3282 사무실 535-2169 주임신부 양성현
유치원 532-5777 수녀원 533-9219 사목회장 박성민
F A X 535-2169

1. 전신자 1일피정: 25일(수) 전 9시 30분~후 5시, 금액 - 5천원 (점심제공), 감사 - 박종인(라이몬드)칼멜수사신부님 접수 - 사무실, 반장, 레지오단장
2. 성서반 모집합니다.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9월부터 시작
3. 견진대상자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낭만자 방문합니다: 행복자를 찾습니다
5. 사목회: 27일(금) 후 7시 30분, 사제관
6. 금주 전례: (토)해설 - 김봉선, (주일)해설 - 이종승
독서 - 이영상, 권윤애
7. 차주 전례: (토)해설 - 전강철, (주일)해설 - 전영자
독서 - 나종태, 김미정
8. 금주 모임: ① 프란치스코 재속삼회, 아브라함회 - 22일
② 꼬미시움 - 28일
9. 금주 정소: 월 - 지혜로운 정녀, 토 - 가난한 이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336,300원 □ 교무금: 1,123,00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김의철
유치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사목회장 김남기

1. 오늘은 이재민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2. 예비신자 인도에 노력합니다
3. 구역모임: 금구구역 - 정완중(요한)씨매 금요일 후 8시
4. 감사 헌금: 김성환 2만, 주정태 5만, 문부태 2만, 라형준 2만
손대혁 2만, 박준남 2만, 이윤연 1만 * 감사합니다
5. 성당 정소: 레지오 전단원
6. 금주 모임: ① 모니카회 - 공식미사 후
② 울트레야 - 목요일 후 8시 30분 7. 차주 모임: 사목회
8. 금주 전례: 해설 - 이정자, 독서 - 김남기, 김화자
봉헌 - 정완중 부부
9. 차주 전례: 해설 - 최석기, 독서 - 손영진, 안금순
봉헌 - 강삼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45,200원 □ 교무금: 280,000원
□ 2차 헌금: 149,400원

신태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전용복
수녀원 571-8203 사목회장 오영화

1. 금주 공소 미사: 신기(토), 능교(주일)
2. 차주 공소 미사: 진홍(토)
3. 금주 미사 참석: 육단, 태인
4. 구역(반)장 모임: 27일(금) 후 8시
5.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28일(토)
6. 금주 전례: 해설 - 김미라, 독서 - 신민수, 김희영
봉헌 - 허진혁, 홍세미
7. 차주 전례: 해설 - 박정숙, 독서 - 김진권, 김명자
봉헌 - 전광욱, 고점순

□ 지난주 봉헌금: 1,040,100원 □ 교무금: 640,000원
□ 2차 헌금: 374,04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박종홍
F A X 544-2271 수녀원 544-2273 사목회장 김태출

- ◎ 오늘 이재민 돕기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꾸리아, 구역장 회의(토) 후 2시
 2. 본당미사 참여공소: 용지
 3. 교육관 건립기금 입금: 김한태, 김순이, 최영범 각 100만원
이은주 - 50만원, 박옥자 - 10만원 총계 - 67,321,915원
 4. 성당 정리작업에 협조하여 주시고 교육관 건립기금을 아직 신림 안 하신분은 신림해 주시고 입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금주 전례: 해설 - 김송태, 김진숙, 독서 - 김영철, 서순자
봉사 - 성조들의 모후 Pr.
 6. 차주 전례: 해설 - 최영호, 이지연, 독서 - 정수만, 김화자
봉사 - 셋빛의 모후 Pr.
 7. 성당 정소: 5, 8, 9, 10구역, 차주 - 6, 11, 12구역
- 지난주 봉헌금: 860,500원 □ 교무금: 745,000원
□ 페루 선교: 386,000원

연지동 주임신부 533-0044 사무실 533-0898 주임신부 김요안
F A X 533-0045 수녀원 533-2578 사목회장 박남기

1. 오늘의 모임: LM 꾸리아
2. 주간 모임: 사목회 - 24일(화) 후 8시
3. 구역(반)장 1일 피정: 25일(수) 전 9시 30분~후 5시, 시기동성당
4. 중고등부 견진교리: 28일(토)~10월 2일(토), 매주 토요일 후 5시
3층 강당, 대상 -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세례를 받은 학생
5. 차주 모임: 구역(반)장 회의 - 9월 2일(목)
6. 견진성사 신청마감: 9월 19일 7. 8월성당 정소: 사도의 모후 Pr.,
신비로운 장미Pr. * 수고하셨습니다
8. 9월 성당 정소: 모든 성인의 모후 Pr., 능하신 동정녀 Pr.
* 수고하셨습니다
8. 상반기(1월~6월)중에 교무금 완납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무금 신림을 하지않은 분들은 속히 책정해 주시길, 사무실
9. 봉헌에 환가 교우가 있으신 가족분들은 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46,000원 □ 교무금: 2,362,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김환철
유치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사목회장 김치덕

1. 2000년 대희년 맞이 묵주기도 1억단 봉헌과 새날새삼운동을 실천합니다: 봉헌표를 작성하여 매주일 예물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 총 - 80,198단
2. 봉월공소미사: 오늘 후 2시
3. 모임: ① 꾸리아 - 공식미사 후
② 여성분과, 계대회 - 27일(금)
4. 성당 정소: 바다의 별

□ 지난주 봉헌금: 1,337,400원 □ 교무금: 1,600,000원
□ 2차헌금: 277,5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서정현
F A X 581-0241 사목회장 정갑룡

1. 레지오 회합: ① 신복 구역 - 매주 토요일 후 9시
② 줄포 1구역 - 매주 수요일 후 8시
③ 줄포 2구역 - 매주 목요일 후 8시
④ 용반 구역 - 매주일 후 8시 30분, 공소회합실
⑤ 만석 구역 - 매주일 전 9시, 공소회합실
2. 예비신자 교리 시작: 매주 토요일 후 8시 40분, 사제관 회합실
3. 본당 다용도실, 화장실 건축 완공: 지금까지 봉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305,100원